2026.10.28 (수) | 오늘의 주제

[AX·GX 산업 대전환 시리즈 ②편] 해외는 지금 _ AX·GX 글로벌 규제와 시장 흐름

1. 오늘의 기술사업화 뉴스

• (GX 동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월 27일 보고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실태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EU에 수출하거나 수출을 계획하는 610개사를 조사한 결과 82.5%가 규정을 전혀 모르거나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자사 제품에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진단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16.7%에 그쳤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32.3%)과 시험·인증·컨설팅 비용 부담(30.3%)이 꼽혔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10.27〉*

• (GX 동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10월 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경남 산업의 전환과 탄소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권역별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EU의 인정을 받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출량 검증기관이 국내에 아직 없어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검증기관 인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고, 기업 쪽에서는 자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6.10.26〉*

• (정책 동향)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6일 발표한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3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9월 누계는 965억 달러(9.5% 증가)이며, 반도체(68.8%↑)·화장품(28.6%↑)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는 중동 항로 봉쇄 영향 등으로 42.4% 줄었습니다. 미국(57억3000만 달러)이 3분기 최대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출처: 벤처스퀘어, 2026.10.27〉*

• (정책 동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지시간 10월 2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 경제부 산하 중소기업기술협력공사(SERCOTEC)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SERCOTEC이 칠레 전역에서 운영하는 기업개발센터 62곳을 활용해 현지 기업·지원기관 연계를 돕고, 중진공은 산티아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거점으로 칠레·중남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합니다. 이후 비즈니스 매칭과 현지 진출 컨설팅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출처: 뉴스1, 2026.10.27〉*

• (AX 동향) 원정연구원 등이 10월 23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연 '2026년 제3차 원정포럼'에서 각국 AI 규제가 비교되었습니다. EU는 AI를 금지·고위험·투명성·최소위험 4단계로 나눠 규제하고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7%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반면, 미국은 연방 AI법 없이 기존 법률과 주법으로, 중국은 딥페이크·알고리즘 추천 등 행위별 규정으로 대응한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 AI기본법을 시행한 한국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출처: 헬로디디, 2026.10.23〉*

※ 오늘 뉴스에는 EU 포장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 각국 AI 규제처럼 바다 건너에서 정한 규칙이 우리 중소기업의 자료 준비와 비용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수출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해외 규제들을 네 갈래로 묶고, 수출·납품 중소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2. 오늘의 한 조각 _ 해외는 지금, AX·GX 글로벌 규제와 시장 흐름

의무는 해외 바이어가, 자료는 우리가 _ 수출 중소기업에 닿는 AX·GX 해외 규제 네 갈래

탄소·포장·공급망·AI 규제는 법적 의무자가 EU 수입자나 대기업이어도, 그들이 낼 근거 자료는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서 나온다

글 · 조남주 대표이사 | 2026.10.28



▲ 수출 컨테이너 앞에서 제품 자료를 점검하는 중소 제조기업 직원들(일러스트) *이미지: AI 생성(FLUX)*

[AX·GX 산업 대전환 시리즈 ②편]

지난 ①편에서는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이 같은 고객, 같은 현장 데이터, 같은 지원 제도를 타고 함께 온다는 큰 그림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시선을 바다 건너로 돌려, 해외에서 정한 규칙이 수출·납품 중소기업에 어떤 모습으로 도착하는지 살펴봅니다.

해외 규제를 읽는 핵심은 '누가 의무를 지느냐'보다 '누가 자료를 내느냐'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인증서를 사고 당국에 신고하는 법적 의무자는 EU 수입자입니다. 그러나 배출량을 계산할 생산 공정 자료는 우리 수출기업이 넘겨야 합니다. 의무는 바이어에게 있어도, 준비할 자료와 비용은 납품하는 회사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수출 중소기업에 닿는 해외 규제는 크게 네 갈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탄소(CBAM), 제품·포장, 공급망 실사, AI 규제**입니다.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요구는 비슷합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거 자료로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닿는 해외 규제 네 갈래

탄소 · CBAM	제품·포장	공급망 실사	AI 규제
제품 탄소배출량 자료 철강·알루미늄 → 하류제품 확대 추진	포장재·제품 설계 자료 EU 포장규정 2026.08 적용	인권·환경 점검 자료 대기업이 협력사에 요청	AI 쓰임새·위험 설명 EU AI법 위험 등급별 의무

▲ 해외 규제 네 갈래는 이름이 달라도 결국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한다 *그래픽: 랩 위드*

갈래	지금 어디까지 왔나	중소기업에 오는 요구
탄소(CBAM)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개 품목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철강·알루미늄을 쓴 자동차부품·기계·가전 등 하류제품으로 2028년부터 넓히는 개정을 EU가 추진 중	제품별 탄소배출량 자료. 소재 기업뿐 아니라 부품·가전 협력사도 배출량을 계산할 준비가 필요
제품·포장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 2030년부터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 함량 요건이 본격화	포장재 재질·유해물질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 재생원료 증빙
공급망 실사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직접 적용 대상을 대기업 중심으로 좁히는 개정이 진행되어 왔음	중소기업은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원청·바이어의 협력사 점검 설문과 증빙 요청을 받음
AI 규제	EU AI법은 AI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적용. 미국은 연방법 없이 주법·기존 법률로, 중국은 행위별 규정으로 대응	AI가 들어간 제품·서비스를 EU에 낼 때 용도·위험 등급·사람의 감독 방식 설명

준비 수준은 아직 낮습니다.

무역협회가 EU 수출(예정) 기업 610곳을 조사한 결과, 포장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82.5%가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자사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진단한 기업은 16.7%뿐이었습니다. 탄소 쪽도 사정이 비슷해, EU 인정을 받은 CBAM 배출량 검증기관이 국내에는 아직 없다는 점이 지난 26일 경남 포럼에서 지적되었습니다.

AI 규제는 나라마다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U는 위험 등급별로 의무를 정하고 위반하면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을 매깁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AI를 빠르게 키우면서 필요한 부분만 규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의무 적용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AI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한다면 출시 전에 해당 국가의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규제는 문턱이지만, 넘으면 진입장벽이 됩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34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고, 미국이 최대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시장은 열려 있고, 같은 규제를 먼저 준비한 회사는 '자료를 바로 낼 수 있는 협력사'로 바이어의 선택을 받습니다. 경쟁사가 준비하지 못한 만큼이 우리 회사의 기회가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네 갈래를 따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력·연료 사용량, 원료·포장재 구매 기록, 거래처 정보, 사내 AI 사용 목록은 한 번 정리해 두면 여러 규제 자료에 함께 쓰입니다. ①편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는 한 번 모아 여러 곳에 쓴다'는 원칙이 해외 규제 대응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AX·GX 규제의 의무는 바이어와 대기업이 지고, 그 근거 자료는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서 나옵니다. 다음 ③편(10.30 금)에서는 '국내는 지금'을 주제로 AI 기본법, 탄소중립·배출권 제도,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의 AX·GX 지원사업 흐름을 한 장 지도로 정리합니다.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EU PPWR 대응 실태와 과제」(2026.10) · 산업통상부 CBAM 하류재 설명회 보도(2026.10.23) · 헬로디디 원정포럼 보도(2026.10.23) · 중소벤처기업부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2026.10.26) · 랩 위드 내부 정리 (2026.10.28)

3. 실전 체크리스트

✔ ③ 실전 체크리스트 _ 우리 회사 해외 규제 노출도 점검

- ▸ 최근 1년 수출·납품 품목을 적고, 그중 EU·미국으로 가는 품목(직접 수출과 원청을 거친 간접 수출 모두)을 따로 표시한다
- ▸ 표시한 품목마다 철강·알루미늄 사용 여부, 포장재 재질, AI 기능 포함 여부를 한 줄씩 적어 네 갈래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 ▸ 바이어·원청에게서 받은 설문지(탄소·환경·인권·포장 관련)를 한 폴더에 모으고, 답하지 못한 항목을 표시한다
- ▸ 제품 하나를 골라 전력·연료 사용량과 원료·포장재 구매 기록을 월별로 뽑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본다
- ▸ EU 수출 품목이 있다면 무역협회·코트라·CBAM 헬프데스크 등 무료 상담 창구 한 곳에 이번 주 문의한다
- ▸ AI 기능이 들어간 제품·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을 판단하는 AI인지, 사람이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 장으로 적어 둔다
- ▸ 해외 규제 소식을 챙길 담당자를 한 명 정하고, 매달 한 번 바뀐 일정을 사내에 공유하게 한다

4. 이번 주 마감임박 지원사업 (중앙정부 70% · 대전지역 30%)

- **[중앙]** [세종_초광역선도기업] 2026년 세종 초광역 선도기업 ESG 진단평가 및 컨설팅 참여 기업모집 공고 **(~10.2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MS
- **[중앙]**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점프업 Track 시행계획 공고 **(~10.30)**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10.30)**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중앙]** '26-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10.30)** · 국방기술진흥연구원
- **[중앙]** 2026년도 한-독 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11.0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대전]** 2026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10.29)**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2026년도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단체참가 참여기업 모집공고(간접출전) **(~10.3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10.29(목)~11.04(수) 마감 공고 가운데 오늘 주제(해외 규제·수출)와 AX·GX에 가까운 공고를 중심으로 중앙 5건, 대전 2건을 추렸습니다. 10.28자 브리핑이 아직 발행되지 않아 전날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접수 마감 시각과 방법은 접수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랩 위드 지원사업 브리핑 (2026.10.27 기준).

EU·미국 바이어가 탄소·포장·AI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회사 수출 품목의 해외 규제 노출도를 진단하고, 지원사업과 연결한 대응 계획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 'R&D 사전기획' 컨설팅 상담

상담 신청 ☎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 cafe.naver.com/techcomwith

▶ **더 보기:** PEST vs PESTLE 분석 (cafe.naver.com/techcomwith/244)

▣ 랩 위드 컨설팅 솔루션 _ 사업화 전 단계를 전문가가 함께 설계합니다



랩 위드 AI R&D 전략 분석 플랫폼

"R&D 사업계획서, AI로 구조화"

- · 공고·RFP 분석 → 평가항목별 맞춤 전략 도출
- · 정부 과제 DB 2,900+건·선행연구 검색
- · 평가위원 관점 피드백으로 완성도 점검



IR 컨설팅 솔루션

"기업진단부터 모의 IR까지 4STEP"

- · 기업진단 → 투자전략 → IR Deck → 모의 IR
- · 피치덱 10장 구조·트랙션·Ask 설계
- · 7회차 온라인 관리로 단계별 코칭



기업진단 솔루션

"우리 회사 사업화 준비도 점수화"

- · 기업정보·재무·기술개발·정성평가 종합
- · 강·약점 종합 진단 리포트 자동 생성
- · R&D·투자 준비 우선순위 제시

◆ 랩 위드 채널 _ 지금 바로 연결하세요

랩 위드는 매일 중앙정부·대전지역 12개 기관 지원사업을 수집·분류해 고객사에 전달합니다. 브리핑·인사이트·AI 분석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 _ R&D·사업화 전략 수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 [무료 공개] 랩 위드 지원사업 내비게이터 _ 공고가 뜨기 전에, 준비는 시작됩니다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내비게이터' 메뉴 | 중앙정부와 대전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준비 달력

- 공고는 마감 3~4주 전에 뜨지만, 경쟁력 있는 계획서는 주제 설정·컨소시엄 구성·수요처 확보까지 통상 4개월이 걸립니다.
- 중앙정부와 대전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단위로 묶었습니다(17개 부 포함 36개 부처·청·위원회).
- 접수 마감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D-day 준비 단계와 '지금 할 일', 서류별 통상 소요일(예: 연구소 인정서 21일)을 보여 드립니다.
- 정부지원금을 넣으면 총사업비·기관부담금·현금·현물 부담을 기업 규모별로 바로 계산합니다.
- 공고 포털이 '무엇이 열렸는지'를 알려 준다면, 내비게이터는 '언제부터, 무엇을,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 ※ 지원 규모·자금 비율은 통상 기준이며, 최종 요건은 공고문으로 확인하십시오.

QR로 지원사업 내비게이터 바로 열기

◆ [4기 모집] R&D 실무교육 아카데미 _ 될 때까지 지원하는 실습 교육

2026. 11.9(월)~11.10(화) | 과정별 1일 완결 |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교육장(대전 중구)

- 참가자 본인이 보유한 기술로 그날 R&D 연구계획서·PSST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 과정입니다(R&D 과정은 본인 기술 1건 보유 필수).
- R&D 평가위원이자 전문개인(엔젤)투자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하고 지도합니다.
- DAY1 · 11.9(월) R&D 연구계획서 작성 실무 10:00~16:00 _ 30만원 | DAY2 · 11.10(화) PSST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10:00~14:00 _ 25만원
- 이어지는 기수: 5기 11.30(월)~12.1(화) · 6기 12.21(월)~12.22(화)
- 날짜별 개별 신청 가능 · 각 과정 정원 4명 선착순 마감
- TRACK B · 계획서 진단 클리닉(4시간) _ 15만원 · 상시 접수(1~2인은 평일 중 협의, 3인 이상은 원하는 날짜로 별도 개설)
- 신청: 홈페이지 www.labwith.kr 실무교육 아카데미 페이지의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골라 신청하십시오.
- 문의: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 카카오톡 ID antipoto

기술사업화 랩 위드
Tech-Commercialization Lab WITH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조남주 대표이사 · 공학박사 · 전문개인(엔젤)투자자

☎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대전 본사 (34897)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15번길 56, 진호빌딩 301호

홈페이지: www.labwith.kr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techcomwith